불교미술·공예

佛敎美術 · 工藝

BUDDHIST ART · CRAFTS

020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傳山青石南庵寺址蠟石舍利壺

Agalmatolite Jar with Inscription of Chinese Reign TiHe Yontai

통일신라시대 766년 | **전체높이** 14.5 | **항아리** 높이 12.7 입지름 9.0 밑지름 8.5 | **뚜껑** 높이 2.5 입지름 9.0
국보 제 233호
Unified Silla Period (766) | **H** 14.5 | **Jar** H 12.7 Md 9.0 Bd 8.5 | **Lid** H 2.5 Md 9.0
National Treasure No.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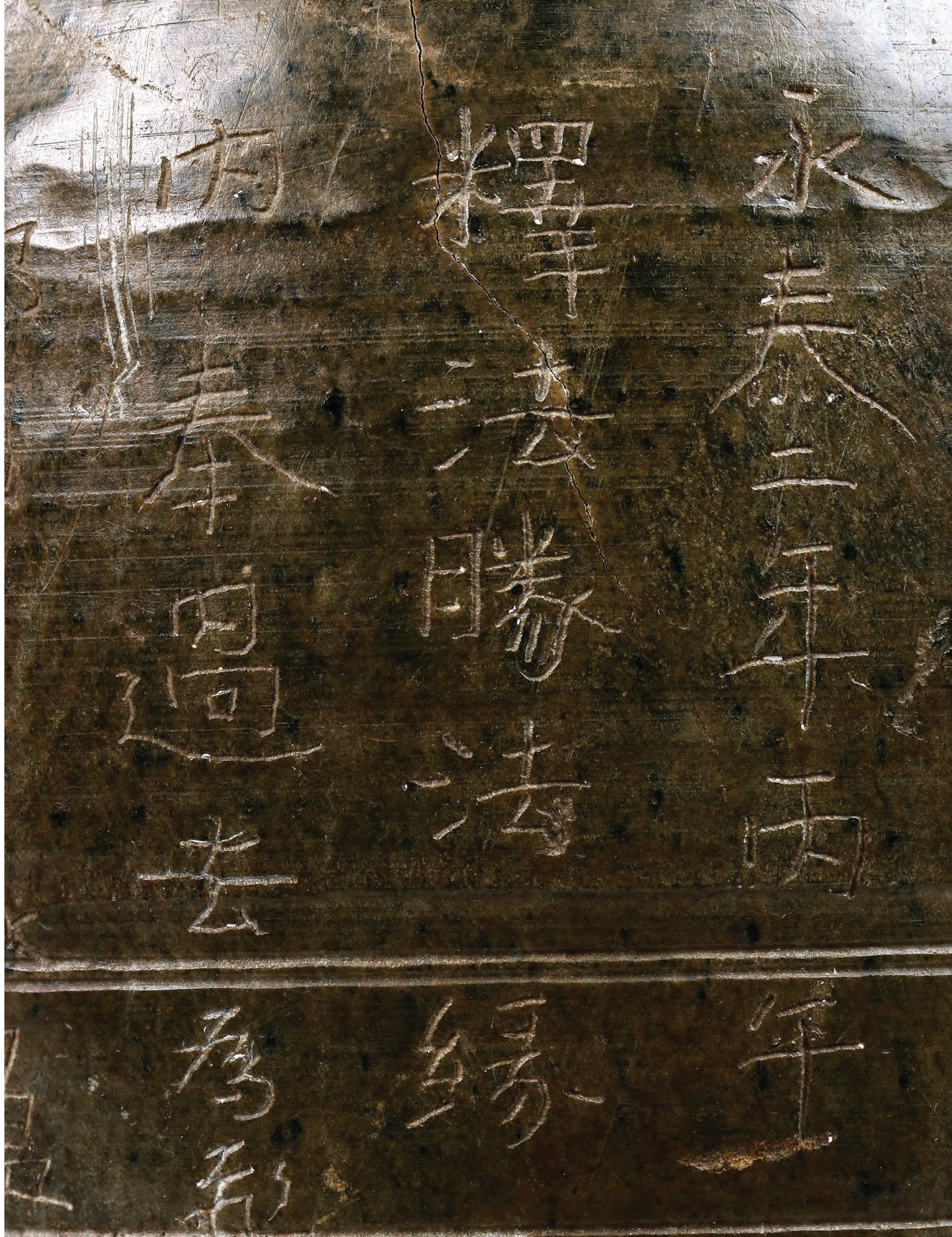
경남 산청군 지리산 폐사지에 있던 석조비로자나불 대좌의 중대석中臺石 안에서 납입된 것으로 전해지는 곱돌蠟石로 만든 사리호이다. 사리호는 뚜껑이 있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마연磨硏하여 잘 다듬었으며 흑갈색을 띤다. 항아리의 아가리 끝이 일부 파손되고 몸통에 약간의 파열선破裂線이 있으나 거의 완형이다. 바닥부분은 굽이 없이 평편하고 넓어 안정감을 준다. 뚜껑은 꼭지가 없으며 윗면이 평편한데 중간부분에 2줄, 가장자리에 2줄, 옆면에 2줄의 가는 선을 돌렸으며, 안쪽은 둥글게 마연한 후 가운데에 지름 3.6㎝ 가량의 연화문을 새겼다. 항아리는 어깨부분과 몸통 중간,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 2줄의 가로선을 돌려 장식하였으며 그 위에 8 ~ 11자를 15행으로 돌아가면서 명문銘文을 얕게 음각하였다. 글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어 판독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의 파악은 가능하다. 그 내용은 "영태永泰 2년 병오년丙午年 7월 2일에 석법승釋法僧・법연法緣 두 스님이 두온애랑豆溫哀郞의 추복追福을 위하여 무구정광다라니無垢淨光陀羅尼를 함께 봉안하여 석남사 관음암에 안치하였는데 이 공덕으로 두온애랑의 영신靈神과 발원인 두 스님은 함께 모두가 삼악도三惡道의 업業을 멸하고 성불成佛하기를 원한다" 이다.
영태는 중국 당나라 연호年號로 신라 혜공왕惠恭王 2년 766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곱돌사리호로는 봉화 서동리 3층 석탑 및 축서사 3층 석탑 출토 사리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3층 석탑 출토 사리호 등이 있다. 이러한 선례로 보아 곱돌사리호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리호는 불상의 대좌 중대석에 법사리法舍利를 봉안한 최초의 사례이며 비로자나불의 조성 기록과 함께 영태 2년 신라 혜공왕 2년 766이라는 명문을 통해 신라 비로자나불 좌상의 제작 연대를 8세기로 끌어올린 귀중한 자료이다. 바닥에도 명문이 남아 있으나 서체가 정연하지 않고 긁힌 곳이 많아 판독이 어렵다.

A sarira reliquary made of agalmatolite and National Treasure No. 233. The characters carved on the surface reveal the year of its production (766 C.E.) and its function. Excavated from inside the middle stone of a plinth for a now-relocated stone Vairocana statue that was originally in a Buddhist hermitage called Seongnamam on Jirisan Mountain in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Province, this reliquary was made by two monks to pray for the repose of Duonaerang, a deceased member of Silla's elite youth corps Hwarang.

항아리 바닥

뚜껑 상부

뚜껑 내부



021

인화문호
印花文壺
Vessel with Stamped Design

통일신라시대 8세기 | 높이 18.0 입지름 11.9 밑지름 12.5
Unified Silla Period (8th Century) | H 18.0 Md 11.9 Bd 12.5

짧은 대각臺脚을 가진 호형壺形 토기이다. 이 토기는 제작이 정교한 상품上品은 아니지만, 국보 제 233호로 지정된 전傳 산청山淸 석남암사지石南巖寺址 납석사리호蠟石舍利壺 766와 공반 유물로 추정된다. 납석사리호는 불상 대좌臺座의 중대석中臺石에 납입되어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인화문호는 대좌석 앞쪽으로 30cm 가량 되는 지점의 땅속 70 ~ 90cm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토기는 기벽이 두텁고 단단한 경질硬質로 구연단과 대각단부 일부가 결락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릇 표면에 산발적으로 유리막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면의 산화박리가 확인된다. 구연단부의 도짐 흔적으로 보아 중복하여 소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밝은 회색이며 대각부와 동체 상부는 부분적으로 진한 회색이다. 저부 위에 점토띠를 돌려쌓고 물레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동체 하단과 견부는 회전 깎기로 손질한 후 전체적으로 거칠게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동체부에는 너비 0.1 ~ 0.2cm의 침선 2줄을 돌려 3단 구획하고 문양을 찍어 장식하였다. 1단은 12판의 화문花文, 2 · 3단은 20개의 치구齒具를 가진 도구로 연속 두 번 찍기를 1조로 하여 압인押印하였다. 3단의 문양은 20조를 부채꼴로 압인하여 총 6단을 돌렸다.

A hard earthenware vessel with random patches of glazing on the outer surface that is presumed to have been stored alongside the sarira reliquary from Seongnamam Hermitage in the same plinth. The body of the vessel is divided into three tiers, each stamped with a separate pattern.

022

탑상문전
塔像文塼
Brick with Pagodas and Seated Buddhas in Relief

통일신라시대 | 높이 6.0 너비 16.2
Unified Silla Period | H 6.0 W 16.2

전돌塼은 점토를 틀에다 찍은 다음 건조시키거나 구운 벽돌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시대에 따라 용도 · 형태 · 문양 등에 변화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부전敷塼 · 벽전壁塼 · 묘전墓塼 · 탑전塔塼 등으로 구분된다. 형태에 따라서 방형 · 장방형 · 삼각형 · 상자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양은 연화문과 보상화문이다.
이 전돌은 불상과 탑의 배열로 이루어진 문양을 배치한 탑상문전塔像文塼으로 형태는 장방형이다. 탑상문전은 7세기 중반 이후 인도를 다녀 온 당唐 구법승들을 통해 중국에 전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조각승 양지良志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주 석장사지錫杖寺址와 청도 불령사佛靈寺,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일대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석장사지나 불령사의 출토 예로 보아 탑을 축조하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돌의 왼쪽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앞면에는 불상 2구와 탑 2기가 번갈아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구름문양을 두었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로 육계肉髻가 있으며 얼굴은 장방형으로 눈은 반개半開하였다.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왼손은 무릎 위에 얹고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다. 탑은 3층으로 기단부 · 탑신부 · 상륜부를 갖추고 있으며 기단부는 2층으로 표현되어 있다.

A rectangular brick with a series of pagodas and seated Buddhas in relief. Based on similar articles excavated from the site of Seokjeongsa Temple in Gyeongju and Bullyeongsa Temple in Cheongdo, this brick is presumed to have been part of a pagoda.

023

불상문전
佛像文塼

Brick with Seated Buddhas in Relief

통일신라시대 | 높이 26.2 너비 15.5
Unified Silla Period | H 26.2 W 15.5

불상이 3단으로 배치된 장방형 전돌이다. 상단에는 2구의 불상이, 중단과 하단에는 각각 3구의 불상이 표현되었다. 상단의 불상은 여래상으로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광배는 거신광擧身光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따로 표현하였다.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며 대의大衣는 뚜렷하지 않고 대좌는 단판연화문이 장식된 앙련대좌仰蓮臺座이다. 중단과 하단의 불상도 여래상으로 광배는 거신광이다. 수인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항마촉지인으로 판단되며 대의와 대좌는 마모가 심하여 파악이 어렵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녹유가 남아 있으며 정확한 용도는 알 수가 없으나 전각에 사용된 벽전壁塼으로 추정된다.

A rectangular brick patterned with three tiers of seated Buddhas. While traces of green glaze remain on the surface, the exact purpose of the brick is difficult to know, but it is thought to have served as building material in Buddhist architecture.

024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Gilt Bronze Standing Bodhisatt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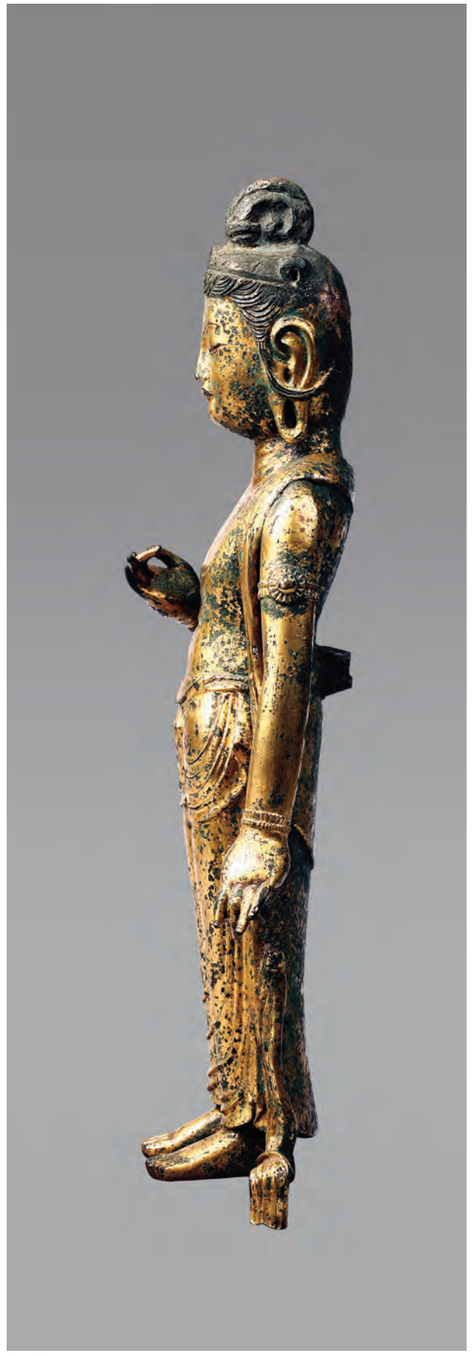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 높이 34.0 | 국보 제 200호
Unified Silla Period | H 34.0 | National Treasure No. 200

이 불상은 정면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금동보살상으로, 현재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는 없어졌다. 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가 높이 솟아 있으며, 이마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본래는 별도의 보관寶冠을 부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마 위의 머리카락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뒤에는 머리카락 표현이 없다. 풍만한 얼굴에는 반쯤 뜬 눈 · 반달모양 눈썹 · 오똑한 코가 새겨져 있으며, 잔잔한 미소가 번져 아름답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귀는 어깨까지 길게 내려오고 있으며, 목에는 굵은 3줄의 삼도三道가 있다.
불상의 상체는 나형裸形으로 1가닥의 천의天衣를 양 어깨에 걸쳤는데 옷자락의 일부가 끊어져 없어졌으나 발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양 팔의 팔뚝과 팔목에 팔찌腕釧를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오른손은 옆으로 올려 손바닥을 위로 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데, 손 모양으로 보아 정병淨甁을 들고 있었던 듯하다. 하체에는 군의裙衣를 걸쳤는데 U자형 주름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다.
불상의 뒷면은 천의와 군의의 대체적인 형태가 새겨져 있다. 뒷머리 부분에 은행모양, 등 · 엉덩이 부분에는 세로로 길게 네모난 주조鑄造 구멍이 뚫려 있고 내부는 비어 있다. 무릎 부분에 난 구멍은 판으로 마감하였다. 허리 뒤에는 광배를 꽂았던 촉이 있는데 광배는 거신광擧身光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상 가운데 비교적 큰 상으로, 당당한 신체표현에 품위와 자비를 갖추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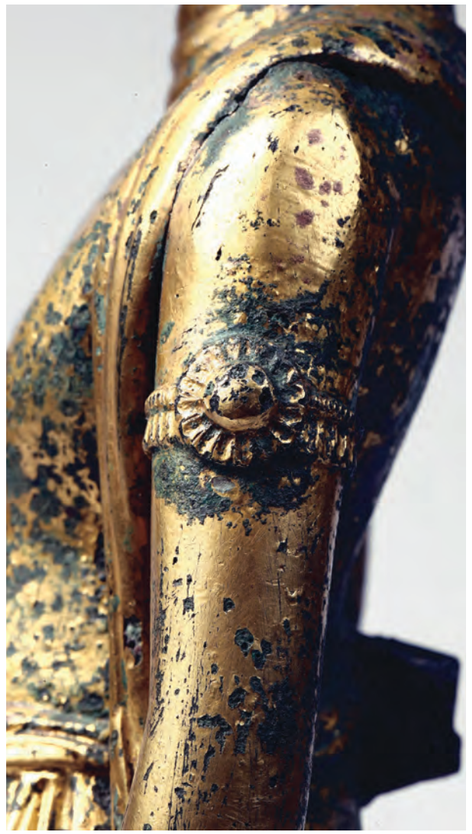
A figurine of a Bodhisattva, standing elegantly, chest out, facing forward, with missing pedestal and aureole. The facial features of the Bodhisattva are kind and gentle, with an *ushnisha*, the auspicious topknot, on the crown. The three creases on the neck symbolize the three steps of asceticism towards enlightenment. The upper body is bare, except for the garment draped over the shoulders that touches the ground, and each arm is adorned with two bracelets. The result is a majestic Bodhisattva figurine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dignified in posture and radiating an air of grace and benev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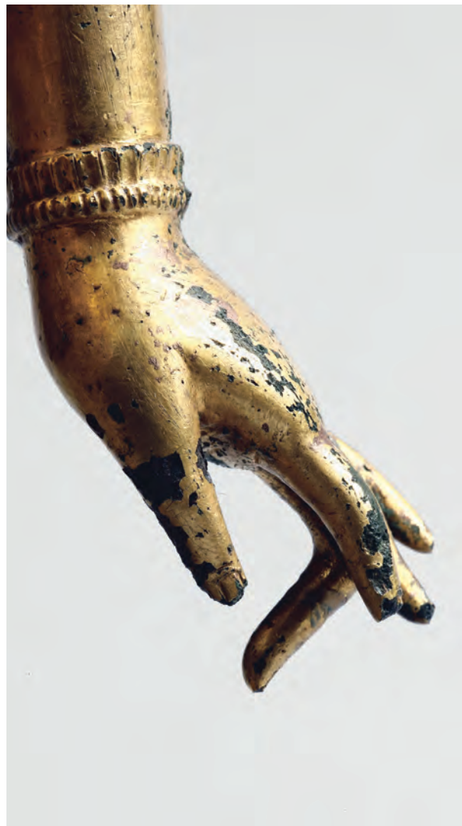
정면

후면


좌 측면

우 측면





팔찌 착용 모습

025

금동보살좌상
金銅菩薩坐像
Gilt Bronze Seated Bodhisatt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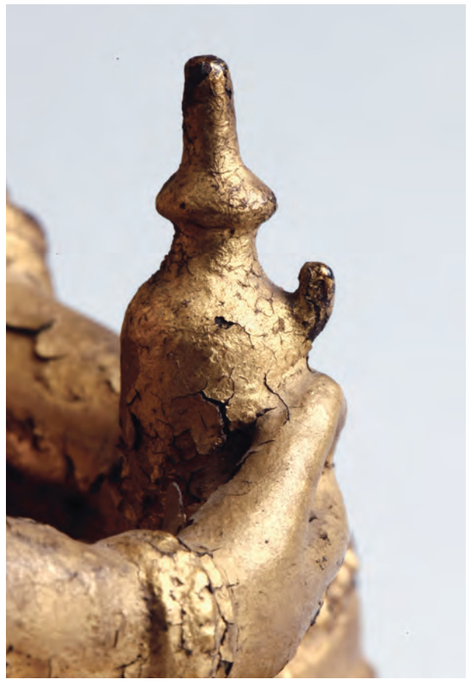
고려 후기 | 높이 16.0
Late Goryeo Dynasty | H 16.0

연화 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보살상이다. 보계寶髻를 기둥처럼 말아 올린 머리 중앙에 화불化佛이 있는 5엽 보관寶冠을 썼다. 보발寶髮은 머리에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내려와 두 개의 원형으로 겹쳐지고 다시 두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나뉘면서 어깨로 흘러내렸다. 얼굴은 크고 이마 중앙에는 백호白毫가 있으며 눈은 반개半開하였다. 입술은 붉은색으로 채색하였으며 콧수염과 턱수염을 표현하였다. 귀에 원반형 귀걸이를 하였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없다.
상체는 나형裸形으로 양 어깨에 숄처럼 한 가닥의 천의天衣를 걸쳤는데 허리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흘러나와 두 팔을 감싸고 대좌로 흘러내렸다. 가슴에는 꽃모양 장식을 중심으로 U자형을 이루며 좌우대칭으로 늘어진 목걸이가 있고, 이 목걸이와 같은 형식의 영락瓔珞이 무릎에도 표현되었다. 하체에는 군의裙衣를 입었으며 가슴 아랫부분에 군의의 띠매듭이 보인다. 양 팔뚝과 팔목에는 팔찌는 착용하였으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정병淨甁을 받치고 있다.
보살상의 뒷면에는 천의와 군의를 간략하게 표현하였으며 화려한 영락장식을 2단으로 늘어뜨렸다. 대좌는 앙련仰蓮과 복련覆蓮이 연접해 있고 상하로 연주문聯珠文을 장식하였다. 보관의 화불과 정병을 받쳐 든 모습으로 보아 관세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으며, 보계와 보관의 형태, 대좌의 형식 등으로 보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 후기에 제작된 라마식 보살상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때 다시 도금하여 보살상의 세부문양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A seated figurine wearing a jeweled crown. The small Amitabha Buddha sculpted in the middle of the crown indicates that the wearer is Avalokitesvara Bodhisattva. The upper body is unclothed, except for a garment draped over the shoulders, while the neck and arms are adorned with jewelry. The hands are gathered on the lap, supporting a *kundika*. The pedestal is in the form of an inverted lotus supporting an upright lotus. This figurine appears to have been made in the style of Tibetan Buddhism, presumably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influenced by the Chinese Yuan Dynasty.

보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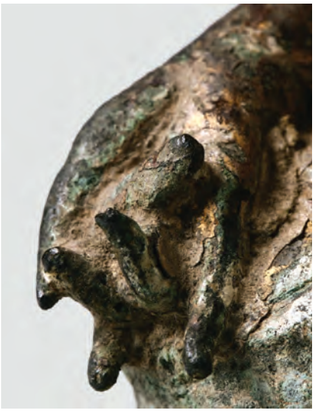


정병

026

금동여래좌상
金銅如來坐像
Gilt Bronze Seated Buddha

고려 후기 | 높이 20.3 너비 11.4
Late Goryeo Dynasty | H 20.3 W 11.4



연화 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여래상이다. 원래는 금동불이었으나 현재는 금맥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머리는 나발螺髮이며 육계肉髻 위에 이중의 정상계주頂上髻珠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납작하고 평면적인 모습에 곡선적인 눈과 도드라진 입술로 인해 윤곽이 뚜렷하고 입체적인 인상을 준다. 귀는 긴 편이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없다.
상체에는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大衣를 입었는데, 오른쪽의 대의자락이 어깨에서 반달형으로 걸쳐지고 그 한 자락이 겨드랑이를 돌아 다시 왼쪽 어깨 위로 걸쳐졌다. 옷주름은 대략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왼쪽 어깨에는 연화문이 음각되었고 대의와 군의 가장자리에는 가는 선으로 당초문을 새겼다.대좌는 앙련仰蓮과 복련覆蓮이 연접한 형식이며 연잎은 복판複瓣으로 표현하였다. 육계 위의 중첩된 정상계주, 앙련과 복련으로 이루어진 대좌, 대의와 군의 형식으로 보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 후기에 제작된 라마식 여래상으로 추정된다.

The Buddha's hair is arranged in a double-tiered clockwise spiral, adorned with precious beads, covering the *ushnisha*, the auspicious cranial topknot. The face is flat, the ears long, the neck smooth without the three creases symbolizing the three steps of asceticism towards enlightenment. The garment is worn in a formal style, revealing the right shoulder. The pedestal is in the shape of an inverted lotus supporting an upright lotus. This figurine appears to have been made in the style of Tibetan Buddhism, presumably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influenced by the Chinese Yuan Dynasty.

027

청동반자
青銅飯子
Bronze Buddhist Drum

고려 전기 | 높이 49.8 지름 46.0
Early Goryeo Dynasty | H 49.8 D 46.0

반자는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금구禁口', '금고金鼓' 등으로 부르며, 사찰의 종루나 당堂 앞 처마 밑에 걸어 두고 쳐서 울리는 의식 법구이다.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등 범종보다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망치 모양으로 생긴 당목撞木으로 쳐서 소리를 내었다.

이 반자는 징과 같은 모양으로 한 면은 두드리는 부분인 고면鼓面이고, 다른 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며 안은 텅 비어 있다. 앞면인 고면은 3줄의 융기된 돌대로 동심원을 그려 내구內區 · 중구中區 · 외구外區로 구획하였다. 내구인 당좌구撞座區에는 자방子房과 연화문을 장식하였는데, 중앙의 자방에는 연자蓮子를 표현하였고 자방 주위로는 16엽의 연꽃잎을 배치하였다. 중구에는 문양이 없으며, 외구에는 고사리 모양의 구름무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4곳에 배치되었다. 옆면은 1줄의 융기선이 둘려져 있고 그 위로 구름 모양을 한 3개의 고리가 부착하여 나무 기둥 등에 걸 수 있도록 하였다. 뒷면에는 1줄의 융기선이 돌려져 있다. 보통 옆면이나 뒷면에 만든 날짜와 사찰 이름, 발원문, 제작자, 무게 등을 기록한 명문을 새기는 경우가 많으나 이 반자에는 명문이 없어 정확한 제작 년대는 알 수 없다. 이 반자는 함옹 9년명 경암사명 반자1073보다 크기는 조금 작으나 형태나 고면의 장식문양이 비슷하고, 고려 초기 반자의 특징인 중구와 외구의 구획이 뚜렷하고 외구에만 간략한 구름무늬를 장식한 점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Gong-shaped bronze drums were suspended from the anterior eaves of a bell tower or building in a Buddhist temple as a ritual instrument. The solid side, decorated with a central lotus and surrounding pattern of spiraling clouds, is for striking; the side with the large hole is designed to maximize reverberation.

028

상주 안수사명 동종
尙州安水寺銘銅鍾
Bronze Bell with Inscription "**尙州安水寺** (Ansusa Temple in Sangju)"

고려 후기 | 높이 51.0 입지름 21.0 밑지름 31.5 무게 17.1kg
Late Goryeo Dynasty | H 51.0 Md 21.0 Bd 31.5 W 17.1kg

범종은 불교의 중요한 의식법구로 사찰 사물四物 가운데 하나이며, 사찰에서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때를 알리기 위해 치는 큰 종이다. 이 동종은 51㎝의 소형 종으로 몸통 중간, 용뉴龍鈕, 음통音筒, 입상화문대立狀花文帶 등의 일부를 수리 · 복원하였으나 원형은 남아 있다. 종의 정상에는 한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문 모습으로 표현된 용뉴가 있고 그 옆에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음통이 있다. 천판天板의 바깥 가장자리에는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가 돌출되었다. 종신鍾身의 상대上帶와 하대下帶는 각각 당초문唐草文과 연당초문蓮唐草文으로 채웠고, 상대 바로 아래로는 4곳에 당초문을 장식한 사각형의 유곽乳廓을 만들고 그 안에 연화좌 중앙에 돌기된 9개의 꼭지가 있다. 유곽 아래에는 종을 치는 부분인 둥근 당좌撞座를 4곳에 배치하였는데, 연주문으로 테두리하고 연꽃으로 장식하였다. 유곽과 유곽 사이 4곳에는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보살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좌상을 새겼다. 보살상은 두광頭光이 표현되었고 머리 위로는 천개天蓋를 장식하였다. 천개의 형태는 육각형으로 영락장식을 화려하게 베풀었는데 바람에 흔들이는 듯이 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몸통 아랫부분 하대와 접한 부분 2곳에 사각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범종의 조성연유, 제작 시기와 중량, 사주寺主, 장인匠人 등을 알 수 있는 글을 새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면에 "정사년 7월, 상주 안수사 쇠종을 만드는 일은 앞서 있던 종이 무쇠였지만 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주와 좌주坐主가 힘을 다하여 권선勸善하여 놋쇠 40근을 합하여 이것으로 종을 만들어 절에 바친다." 는 것과 뒷면에는 "주지 비구 명혜名惠를 비롯하여 발원에 따르는 승속명僧俗名과 장인 유선有先이 받들었다." 라는 내용이다.

정면
丁巳七月日尙州安水寺金鍾鑄成爲乎事叱段前排鍾亦水金沙余良破不用爲去乎 用良寺主幷坐主寸爲勤善爲称合鍮金四十斤乙用良鑄成納寺爲遺下
후면
□□住持比丘名惠□坐官淸文世□□用□用冲□玄昌言正文正言元□持民戈順文□元信子□浦厚允世昌文金迪國柱朴厚貞行晋民元良甲匠有先造

Bells in Buddhist temples were important ritual instruments that were rung to assemble a crowd or announce the time. This bronze bell is relatively small (51cm in height) and has four striking points, each marked with a lotus design. The inscriptions on the surface indicate the reasons for its production and the names of the temple, temple supervisor and artisan involved in its creation.

029

금강저
金剛杵
Vajra

고려 후기 | 길이 20.0
Late Goryeo Dynasty | L 20.0

금강저는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불구佛具의 하나이며 범어로 바즈라Vajra라고 한다. 원래는 고대 인도의 무기 가운데 하나로, 제석천帝釋天이 아수라阿修羅와 싸울 때 코끼리를 타고 금강저를 무기로 삼아 아수라의 무기를 쳐부순다는 신화에서 유래되었다. 불교의식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밀교에서 적을 쳐부수는 의미로 이 무기를 불구로 채용하여 여러 존상尊像의 지물持物로서, 또는 수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단부에 조각된 팔부중상八部衆像이나 사천왕상四天王像 · 인왕상仁王像의 지물로 표현된 예를 볼 수 있으며, 원 나라의 지배 아래 유입된 밀교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가 되면 밀교 의식 법구인 금강저와 금강령金剛鈴이 유행하게 되었다. 금강저의 기본 형태는 가운데 부분을 잘록하게 좁혀 만든 손잡이와 양 끝단이 창끝처럼 길게 돌출된 고부鈷部로 구성되며 고鈷의 개수에 따라 독고저 · 삼고저 · 오고저 · 구고저로 나뉜다.
이 금강저는 손잡이를 가운데 두고 양 끝이 다섯 가지로 갈라진 오고저五鈷杵이다. 손잡이의 중앙부분은 환형環形의 마디가 있고, 이 마디 좌우로 대칭하여 5엽의 연잎이 작은 마디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표현되었다. 손잡이의 양 끝과 다섯 가지 고의 연결부분에는 각각 눈과 코의 윤곽이 또렷하고 입을 크게 벌린 동물이 양각되어있다.

The *vajra* was originally described as the weapon of the Hindu god Indra, but later became a symbol of destroying the torments of earthly existence and was utilized as a ritual instrument in Buddhism. This five-pronged *vajra* is decorated on the handle with lotus patterns stemming from the central ring.

030

쌍룡무늬 거울
雙龍文銅鏡
Bronze Mirror with Design of Two Dragons

고려 | 지름 21.3
Goryeo Dynasty | D 21.3

청동으로 만든 원형 거울이다. 거울 중앙에는 윗면이 납작한 꼭지平頭鈕와 연화문 뉴좌鈕座가 있다. 그 바깥으로 계권界圈에 의하여 내구와 외구로 나누어지는데, 내구에는 두 마리의 용이 배치되었고 용은 각기 머리 앞에 가느다란 가지에 술 장식이 달린 보주寶珠를 하나씩 가졌다. 외구에는 비운문飛雲文을 12개소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의 문양은 고려 동경 가운데 많이 보이는 것으로, 청주 용암 금천유적 토광묘 57호분에서 이 거울과 거의 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가진 쌍룡무늬 거울이 출토되었다.

A mirror in the shape of a disc with a lotus design in the center and two dragons in rotational symmetry around the lotus. The dragons have their jaws open, as if trying to catch the *taiji*-patterned *cintamani*.

031

종모양 보살무늬 거울
鐘形菩薩文銅鏡
Bell-Shaped Mirror with Bodhisattva Design

고려 | 길이 13.5 너비 8.5
Goryeo Dynasty | L 13.5 W 8.5

종모양의 청동 거울로 뉴鈕나 뉴좌鈕座가 없고 위쪽에 구멍이 뚫린 여의두형如意頭形 꼭지가 달려 있어 매달아 놓고 쓴 것으로 보인다. 꼭지 아래 상단은 물결모양이며 하단은 반원을 겹쳐 가운데 부분을 뾰족하게 표현하였다. 거울 중앙에는 보살입상菩薩立像이 양각되었는데, 머리에 두광頭光이 표현되었다. 상체에 걸친 대의大衣는 통견通肩으로 발목 아래 부분까지 내려오며, 하체에는 군의裙衣를 입었다. 대좌는 앙련仰蓮과 복련伏蓮이 연접한 연화좌이다.

A bell-shaped bronze mirror with the top shaped in the form of a *ruyi*-sceptorhead, which is punctured in the middle for suspension. The center of the mirror is decorated with a standing bodhisattva.

032

황비창천명 거울
煌丕昌天銘銅鏡

Bronze Mirror with Inscription "煌丕昌天 (Bright Blue Sky)"

고려 | 지름 16.5
Goryeo Dynasty | D 16.5

'황비창천煌丕昌天'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릉형八菱形의 거울이다. 원형의 뉴鈕를 중심으로 아랫부분에 돛을 단 배 한척이 거칠게 출렁거리는 파도 속을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뱃머리에는 배를 잡으려는 용과 이를 물리치려는 사람들이 보이며, 배 뒤쪽의 사람은 키를 잡고 조정하고 있다. 배의 돛은 뉴에 바싹 붙어 왼쪽으로 나부끼고 있으며, 그 위로 외곽선 없이 2단으로 황비창천이란 글자를 새겨 넣었다. 글의 내용은 '밝게 빛나고 창성한 하늘'이라는 뜻으로 그림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산화가 심하고 일부 파손이 있으나 동경의 형태와 문양은 잘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황비창천명 동경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일상日像과 월상月像이 보이는 원형의 동경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과 월상이 없는 팔릉형의 동경이다. 원형이 팔릉형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무게감도 있으면서 문양도 양감있게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A mirror in the shape of a flower with eight petals, with the characters "煌丕昌天 (bright blue sky)" inscribed at the top. Below the inscription is a single boat sailing through ocean waves, and a person on board trying to ward off a dragon intent on attacking the boat.

033

범어사명 유제시루
梵魚寺銘鍮製甑
Brazen Steamer with Inscription "**梵魚寺** (Beomeosa Temple)"

조선 1664년 | 높이 51.0 입지름 110.0 밑지름 95.0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46호
Joseon Dynasty (1664) | H 51.0 Md 110.0 Bd 95.0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46 of Busan Metropolitan City

입지름이 110cm에 달하는 원통모양의 대형 시루이다. 구연부는 한 단의 턱이 지며 약간 외반된 이중구연이다. 동체부에는 4조의 융기된 횡선대를 두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손잡이를 부착하였다. 바닥에는 장식성이 있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중앙부분을 가장자리 보다 8cm정도 높게 둥근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구연단에는 얇은 횡선대를 둘렀으며 그 아래 세로로 2 ~ 3자씩 총 187자의 명문 있다.
명문은 타정수법打釘手法으로 점각點刻하였으며, 산화가 되었으나 대체로 판독이 가능하다. 명문의 내용은 경상도 동래 북령 금정산 범어사가 제작처이거나 소장처로 밝히고, 그 다음으로 시주자의 명단 54인이 있고, 그 다음으로 연화자緣化者의 명단이 5 ~ 6인이 실리고, 마지막에는 별좌別座의 이름과 강희康照 3년 6월에 주조되었고 무게가 삼백근 임을 밝히고 있다. 시주자는 모두 54명인데 일부를 제외하고 하층민이거나 승려가 많으며 여성 참여자도 다수이다. 시주자의 명단 가운데 춘매春每, 사화士花, 소사召史 등이 여성으로 파악되며 이 밖에 장금長今, 귀개貴介, 옥림玉林 등도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명문에 보이는 해민海敏은 목판본 『범어사창건사적梵魚寺創建事蹟』에 나오는 숙종 10년1684에 비로전을 건립한 해민대사와 같은 인물이다.

A large steamer with the top rim measuring 110cm in diameter. The inscription of 187 characters indicate that either the original site of production or storage was "梵魚寺 (Beomeosa Temple)" on Geumjeongsan Mountain, Bukryeong, Dongnae, Gyeongsang-do Province. Four handles are attached to the main body and holes on the bottom for the steam to come through.